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2차전원회의 참가자들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송고한 경의 표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2차전원회의 참가자들이 10월 7일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송고한 경의를 표시하였다.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의 창건자, 건설자이시며 강대한 사회주의 우리 조국의 위대한 영상이신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주체의 최고성지를 찾은 당중앙지도기관 성원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와 함께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립상에 영생축원의

꽃바구니를 삼가 올리였다. 이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립상을 우러러 송고한 경의를 표시하였다. 당중앙지도기관 성원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모시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영생홀들을 찾아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송고한 경의를 표시하면서 삼가 인사를 드리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2차전원회의 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당건설사상과 업적을 만대에 빛내이며 일편단심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명도를 충정으로 받들어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투쟁에서 맡겨진 책임과 본분을 다해나갈 열의로 가슴 불태웠다.

본사정치정보도반

지금으로부터 20년전인 주제86(1997)년 10월 우리 당과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하는 나라 천만민민의 끝없는 영광과 환희가 누리를 진감하였다. 회세의 천출위인을 높이 모시고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계승완성해 나갈 우리 군대와 인민의 불타는 넘친 의지와 열망이 얼마나 강렬한가를 세계가 경탄속에 절감한 이 날은 반제자주위업의 또 한분의 걸출한 령도자를 받들어오신 진보적인류의 커다란 감격과 기쁨이 온 행성에 끊임없이 굽어쳐오른 날과 달이기도 하였다. 위대한 장군님을 당총비서로 추대할것을 결정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2차전원회의 참가자들은 10월 7일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송고한 경의를 표시하였다.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의 창건자, 건설자이시며 강대한 사회주의 우리 조국의 위대한 영상이신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주체의 최고성지를 찾은 당중앙지도기관 성원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와 함께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립상에 영생축원의 꽃바구니를 삼가 올리였다. 이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립상을 우러러 송고한 경의를 표시하였다. 당중앙지도기관 성원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모시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영생홀들을 찾아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송고한 경의를 표시하면서 삼가 인사를 드리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2차전원회의 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당건설사상과 업적을 만대에 빛내이며 일편단심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명도를 충정으로 받들어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투쟁에서 맡겨진 책임과 본분을 다해나갈 열의로 가슴 불태웠다.

세기를 이어 고조된 위인칭송, 위인흠모열기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되신 역사적인 사변을 전세계가 성대히 경축

기간에 적도기네, 포고에서 집권 당 당수와 정치국 위원들을 위 원장, 위원들로서는 추대환영위원회가, 양광에서 추대지지환영 야당정치리사회가 조직된것을 비롯하여 40여개 나라에서 정부, 정당 고위인사들을 망라하는 추대지지 및 환영준비위원회들이 편이 결성되었다. 경애하는 김정일각하 조선로동당 총비서추대 지지환영 우간다전국조직위원회는 10월을 지지환영월간으로 정하였으며 민주공화국에서는 전국적규모의 추대환영조직위원회를 내오고 여러차례에 걸쳐 환영행사와 관련한 회의를 진행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우리 당의 공인된 총비서로 높이 추대되시였음을 엄숙히 선포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특별보도가 발표되자 그이께 구 바봉산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 캄보디아왕국 국왕, 나이지리아연방공화국 국가수반 겸 무력총사령관, 기네비공화국 대통령, 수리아아랍공화국 대통령 등 세계 여러 나라의 1300여명의 국가, 정부 및 정당 수반들과 지명된 인사들이 축전과 축하편지,

꽃바구니를 드리었다. 특별보도소식에 접한 네팔공산당(현할) 중앙집행위원회 총비서는 격동된 심정을 안고 한밤중에 자국주체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에게 전화를 걸어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되신것을 열렬히 축하한다고 말하였다. 많은 나라의 정당, 단체들은 당대회와 정치국회의, 특별회의, 긴급한집행위원회들을 소집하고 축하문, 축하성명, 특별성명, 특별담화, 호소문 등을 발표하여 김정일각하를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모신것은 시대와 역사앞에 쌓아올린 그이의 업적에 대한 칭송이며 세계사회주의운동사에서 거대한 위대한 장군님을 명예위원장으로서 높이 추대할것을 일치하게 결정하였다. 온 행성이 격정의 환희로 끓고있던 그 시각 배무사회혁명당 중앙위원회 회의에서는 사회주의운동의 걸출한 령도자이신 위대한 장군님을 명예위원장으로서 높이 추대할것을 일치하게 결정하였다. 백두명장에 대한 흠모심은 쓰편인민대의원대회 상설상무위원회, 지중해지역 사회주의자조

직에서 수여해드린 훈장들과 많은 정당, 단체들, 인사들이 삼가 올린 선물들도 드뚝게 어려어 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되신것을 축하하는 다채로운 정치문화행사들이 지구상 이르는 곳마다에서 전례를 초월하여 성대히 진행되었다. 행사장들에서 발전들은 위대한 김정일각하께서 전체 당원들과 조선인민의 한결같은 의사와 념원을 따라 당의 최고수위에 높이 추대되신것은 우리모두의 기쁨이며 행복이다. 조선에서의 이 사변이 그토록 열렬하고 진심으로 되는 지지와 환영을 받고있는것은 김정일동지이시야말로 김정일성동지께서 온 생애를 바쳐 이룩하신 위업의 가장 총직하고 건결한 계승자이시기 때문이라고 토로하였다. 그들은 사회주의재생과 공교 발전을 위한 진보적정당들과 인민들의 투쟁을 힘있게 전진시키고 계시는 김정일동지의 명도밑에 자주화된 새 세계를 건설해나갈 것이라고 하면서 그이는 사회주의위업의 상징이시고 승리의 기치이시라고 격찬하였다. 또한 수십년간 조선과 세계의 정치사를 빛나게 장식해오신 김정일동지는 동서고금을 찾아볼수 없는 정치철로이시며 전 인류가 공인하는 탁월한 령도자이시다. 그이를 태양으로 모시어 다가오는 21세기는 자주, 주체의 세기, 김일성세기로 빛날것이라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회세의 위인 김정일동지를 조선로동당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신 역사적사변을 당시 100여개 나라의 출판보도물들이 앞을 다투어 보도하였다. 일본 NHK TV방송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높이 모시며 그이의 혁명생애와 불멸의 혁명업적을 길이 빛내어나갈데 대한 결정적 가 채택된 소식은 세계를 또다시 뒤흔들고 일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광범한 세계인론들이 이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고있을 때 수많은 정당, 단체들과 지명된 인사들은 편이 성명, 담화들을 발표하였다. 성명, 담화들은 김정일명도자를 조선로동당의 영원한 총비서로 모신것은 그이의 업적을 절실히 옹호고수하고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가기려는 조선의 군대와 인민의 절대불변의 신념과 의지를 뚜렷이 파시하는 일대 정치적사건으로 된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조선로동당은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진보적정당들의 투쟁을 선도하는 본보기당이요, 존경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위업을 계승해나가기에 조선로동당은 오늘도 매일도 변함없이 김일성, 김정일동지의 당으로 위용될것이며 사회주의조선은 더욱 부강번영할것이라고 확인하였다. 이렇듯 누리를 진감한 1997년 10월의 환희는 또 한분의 천출위인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의 성스러운 력사와 더불어 세세대대 끝없이 이어질것이다. [조선중앙통신]